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이코노미스트들,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예상치 낮춰
- Bloomberg: '연준, 9월 금리 인하 준비한다'
- Bloomberg: SF 연준 총재, "인플레 수치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

#### [미국 금융]

- WSJ: 은행들, 새로운 계좌 개설에 현금 보너스 지급
- CNBC: 달러 하락 회복되어 안정세

#### [물류]

- Bloomberg: 미 서부 항만, 교역량 상승

#### [글로벌 IT]

- WSJ: 대규모 IT 장애로 글로벌 항공편과 은행들, 기업 타격

####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인플레이션 안전화 되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고군분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Amex, 마케팅 예산 늘려 성장 회복 안간힘
- TechCrunch: USPS, 메타·링크드인·스냅과 고객 주소 공유 사실 밝혀져
- CNN Business: 스타벅스, 비즈니스 모델 변화 속 '제 3의 장소' 정체성 유지 노력
- WSJ: OpenAI, 더 작고 저렴한 GPT-4o mini 출시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Economists Trim US Inflation Forecasts, Paving Way for Fed Cut**

#### **이코노미스트들,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예상치 낮춰**

-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미 인플레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실업률도 약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최근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들 대상 월간 설문 결과 올해 말까지 연간 핵심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2.6%로 예상했다. 이는 전달의 예상치 2.7%보다 낮은 것이다.

- 올해 말에 전반적인 물가지수는 지난달 예상치 2.6%에서 2.4%로 낮게 예상됐다.
- 전문가들은 또한 올해 4분기 실업률은 4.2%로 예상, 전달의 예상치 4.1%보다 상향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7월 12일부터 17일간 75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Fed Prepares for September Cut as Powell Shifts Focus to Jobs

### ‘연준, 9월 금리 인하 준비한다’

- 연준 관리들은 물가 안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연준 관리들은 연설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파월 의장은 이달 30일부터 이틀간의 회의 직후 금리와 관련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 물론 연준 관리들은 금리 인하 전에 물가가 계속 2% 방향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들을 더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파월과 연준 관리들은 경제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미 경제의 연착륙 기회를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 한편 파월 의장은 지난 10일 의회에서 “물가 하락 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동 상황이 어떠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 시장 또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Fed's Daly Says Incoming Inflation Data Very Good, Not There Yet

### SF 연준 총재, “인플레 수치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

- 샌프란시스코 Mary Daly는 최근 인플레 지표들은 매우 좋지만 연준이 아직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아직 가격 안정성에 있지 못하며, 금리를 인하할 정도의 지속적인 경로에 있다는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지난주에도 “노동 시장의 리스크와 물가 안정이 보다 균형적이지만, 연준은 2% 물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WSJ: Banks Are Offering Bigger Cash Bonuses for New Accounts 은행들, 새로운 계좌 개설에 현금 보너스 지급

- 미 대형 은행들이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이들에게 현금 보너스와 프로모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 은행들은 예금을 원한다.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을 때, 체크 계좌와 예금 계좌의 이자율을 더디게 올렸던 은행들 사이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매 예금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체이스와 웰스파고는 새로운 체크 계좌와 자동 이체를 한 고객들에게 3백불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새로운 저축 계좌를 개설한 경우 첫 90일 동안에뱅크오브아메리카는 2백불을 제공하고 씨티은행은 5%의 프로모션 이자를 제공한다. 고객들이 현금을 고금리 계좌나 머니마켓 펀드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WSJ 기사

### CNBC: Dollar set to eke out weekly gain as traders weigh U.S. rates, yen wobbles 달러 하락 회복되어 안정세

- 미 노동시장과 제조 지수들을 지켜보는 트레이더들이 연준이 올해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의 금리를 인하할지 주목하는 가운데 오늘 금요일 현재 달러는 안정세를 보이고 지난 2주간의 하락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 다른 6개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 인덱스는 수요일에 4개월만에 가장 낮은 103.64에서 104.21로 상승했다. 지수는 지난 두주 동안의 손실 후 이번 주에 0.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일본 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일본 정부의 약 6조엔 규모의 개입으로 인해 목요일 6주만에 가장 높았던 달러당 155.375엔을 기록한 후 오늘 달러당 157.24에서 거래 중이다.
- 일본의 금요일 핵심 물가지수 발표에 따르면 5월과 6월 잇따라 물가가 가속화되어 곧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CNBC 기사

## [물류]

### Bloomberg: Port of LA Container Volumes Up 14% on Strong Trade Activity

## 미 서부 항만, 교역량 상승

- 올해 상반기에 미 서부 항만들은 강력한 교역량을 기록했다. 이른 성수기에다 강한 소비 지출과 동부와 걸프 항만의 노동 파업 위협 때문이다.
- 관련 통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항만은 올해 상반기에 20피트 규모 4백 70만 규모를 처리했는데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물량이 14.4% 증가한 규모다. 6월의 수입 물량은 작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반면에 수출 물량은 13% 증가했으며 빈 컨테이너 물동량은 4.6% 줄었다.
- 인플레이 감소와 높은 임금, 그리고 강한 일자리 시장으로 인해 소비 지출이 증가해 안정된 물동량을 보였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 [글로벌 IT]

#### WSJ: Major IT Outage Grounds Flights, Hits Banks and Businesses Worldwide

##### 대규모 IT 장애로 글로벌 항공편과 은행들, 기업 타격

-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기술 장애가 발생하여 은행, 미디어 회사, 응급 서비스의 운영이 중단되고 항공사가 비행을 중단해야 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성과 상호 의존성을 드러냈다.
-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의 업데이트 작업 때문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기기 사용자들이 장애를 겪었다.
- 주요 항공사들은 연방 항공청의 권고에 따라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윈도우 컴퓨터와 태블릿이 미국, 중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다운되었으며, 소셜 미디어에는 기기가 강제로 재부팅되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최고 경영자 조지 커츠(George Kurtz)는 X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해당 문제를 확인한 후 수정하였다고 밝히며 “이것은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한 기업의 업데이트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디지털 블랙아웃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경제의 기술 의존성과 특정 도구에 대한 과도한 통합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WSJ 기사

###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Central banks are winning the battle against inflation. But the war is just getting started

### 인플레이션 안전화 되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고군분투

-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연례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 미국과 유로존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15%, 18%의 누적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후, 현재 2.6%, 2.5%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팬데믹 이전의 안정적인 경제로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기후변화, 녹색 인프라 투자, 중동 지역의 전쟁 위험 등 여러 요인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가능성은 미국과 유로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10% 관세가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을 유발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을 1.1% 포인트 추가하고 유로존의 생산량을 1%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 이론적으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일시적인 영향만 미치는 공급 충격을 무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반복될 경우 인플레이션 목표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 정치인들의 부채 증가 선호도 문제이다. 관세로 인한 정부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 충격으로 성장이 둔화되면 부채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채권 시장은 재정 정책에 경계하고 있으며, 11월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적자 재정에 의한 감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 및 중앙은행과 포퓰리스트 정치인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과소평가 되고 있으며 금융 시장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만, 팬데믹이 중앙은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임을 인식해야 한다.

The Economist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Amex Says It's Going on Marketing Spree as Billings Growth Slows

#### Amex, 마케팅 예산 늘려 성장 회복 안간힘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Co.)는 2분기 신용카드 판매액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향후 몇 개월간 마케팅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스티브 스퀘리(Steve Squeri) 최고경영자는 금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마케팅 비용이 2023년보다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분기 신용카드 판매액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적게 성장한 후 나온 발표이다.
- 마케팅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Amex는 사기 방지 제공업체인 어서트파이(Accertify)의 매각으로 인한 덕분에 연간 수익 가이드를 주당 13.30달러에서 13.8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 예상치는 12.65달러에서 13.15달러였다.
- 스퀘리 CEO는 “올해 뛰어난 수익 결과를 내면서도 거래 이익을 사용하지 않고 작년 대비 마케팅 투자를 약 15% 늘릴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이익을 순이익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 Bloomberg 기사

### TechCrunch: USPS shared customer postal addresses with Meta, LinkedIn and Snap USPS, 메타·링크드인·스냅과 고객 주소 공유 사실 밝혀져

- 연방우체국(USPS)가 온라인 고객의 우편 주소를 메타(Meta), 링크드인(LinkedIn), 스냅(Snap) 등 광고 및 기술 대기업과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테크크런치에 의해 밝혀졌다.
- USPS는 수요일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관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며,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테크크런치는 USPS가 웹사이트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숨겨진 데이터 수집 코드를 통해 고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술 및 광고 회사는 이러한 코드를 통해 고객의 브라우저에서 코드가 포함된 웹페이지가 로드될 때마다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방문한 페이지 등)를 수집한다.
- USPS의 경우, 수집된 데이터 중 일부는 로그인한 USPS Informed Delivery 고객의 우편 주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수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Informed Delivery는 6,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 TechCrunch 기사

### CNN Business: Starbucks wanted to be the ‘third place.’ Now it’s speeding you out the door 스타벅스, 비즈니스 모델 변화 속 ‘제 3의 장소’ 정체성 유지 노력

- 한때 스타벅스는 하워드 슉츠(Howard Schultz)의 지휘 아래 직장과 집 사이의 ‘제 3의 장소’로 불리며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교류할 수 있는 공

간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면서, 스타벅스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 좌식 매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및 모바일 픽업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제 3의 장소로서의 정체성을 사라지는 것을 우려해 매장 구축을 주저했지만, 고객들의 편리함을 고려해 이 옵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2005년 스타벅스 매장의 약 15%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었으나, 오늘날에는 70%에 달한다.
- 스타벅스는 '제 3의 장소'라는 개념을 물리적 매장이 아닌 경험으로 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스타벅스는 새로운 커피 제조 장비와 모바일 주문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4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제3의 장소를 다시 상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스타벅스는 또한 픽업 매장, 배달 전용 매장, 드라이브 스루 전용 매장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을 포함한 2,000개의 신규 매장을 열 계획이다.
- 현 스타벅스 CEO인 락스만 나라심한(Laxman Narasimhan)은 "제3의 장소의 정의가 더 넓은 의미로 진화했다"며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고전적인 제3의 장소의 정의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 WSJ: ChatGPT Maker OpenAI Goes Smaller and Cheaper With New AI Tech OpenAI, 더 작고 저렴한 GPT-4o mini 출시

- GPT-4o mini라는 새로운 AI 모델은 이전 버전인 GPT-3.5 turbo보다 사용료가 60% 더 저렴하며, 지능과 효과를 측정하는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회사는 밝혔다.
- 생성형 AI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기업인 OpenAI가 효율성을 수용하는 것은 업계 전반의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전에는 Open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쟁사들은 주로 가장 크고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제 이들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AI 기술이 필요한 비즈니스 고객에게 더 유용하고 수익성이 높은 소형 모델을 출시하여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WSJ 기사

## 美국채시장서도 '트럼프 트레이드'...외국 보유 미국채 사상최대

"장기물 금리↑ 전망"...금리인하 기대에 트럼프 집권 전망 더해져  
일본, 5월 미 국채 보유액 감소..."엔화 방어에 사용" 관측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11월 대선 승리에 대한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미 국채 시장에서도 그의 당선을 전제로 장단기 국채의 움직임에 베팅하는 투자

자가 늘어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미 대선후보 토론 이후 미 국채 시장에서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면, 투자자들이 장기물보다 단기물 국채 투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최근까지 장기물보다 단기물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2년물과 10년물 국채의 금리 차이는 대선후보 토론 당시 42.8bp(1bp=0.01%포인트)에서 최근 28.2bp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